

## 정 협회장, WHO 북한담당관과 면담 5월 치협 종합학술대회 북한 치과계 학자 초청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치협종합학술대회에 북한 치과계 학자들의 초청강연회가 추진된다.

특히 앞으로 치협의 대북사업은 치협, WHO, 통일부가 참여하는 협력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정재규 협회장, 강대인 부천 인 병원 이사장, 김동기 재무 이사는 지난 1월 30일 아릴 브로스타 주한 노르웨이 대사, 소렌슨 WHO 북한대표부 담당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대북사업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면담에 참석한 소렌슨 WHO 북한대표부 담당관은 노르웨이 출신으로, 현재 북한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보건 관련 북한 사업을 담당, 북한 보건의료계 내 영향력이 크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과 소렌슨 담당관은 치과관련 대북 사업은 앞으로 치협, WHO, 통일부가 참여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3자가 논의할 수 있는 협력위원회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오는 5월 열리는 치협종합학술대회에 북한 학자를 초청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으며, 필요하다면 장소에 제약없이 서울이나 평양, 북경에서 세미나를 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오는 5월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북한 학자가 초청되거나 공동세미나를 갖게 되면 한국 전쟁이후 54년만에 치과 남북 학술 교류가 처음 있게 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치협의 대북 사업이 WHO나 통일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 추진하게 돼 사업의 계속성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통일 치과계를 대비하는데도 큰 성과가 기대된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번에 합의 본 사항이 가시화 된다면 북한에 물적 자원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학술교류의 물꼬를 트게되는 만큼, 성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진료비 민원 23% 환불 처리 지난해 2494건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 1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결과 총 2494건을 접수, 이중 환불 처리한 금액이 2억7천2백만여원이라고 지난 2월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에 따라 신청민원을 처리한 결과 2494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중 22.8%인 568건, 2억7천2백만여원을 환불조치 했다.

정당하게 적용된 건은 186건으로 7.4%에 불과, 확인신청 건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하된 건수는 1513건으로 60.7%를 차지, 이는 심평원에서 민원 처리 중에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합의 등을 거쳐 취하한 경우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을 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임의비급여 처리가 1억6천6백57만여원(61.2%)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6천4백69만여원(23.8%)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진료비용확인 민원이 발생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은 의원 32.6%(812건), 종합전문요양기관 25.2%(628건), 종합병원 22.2%(554건), 병원 17.7%(4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 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평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 국민건강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 치협, '현 의료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 황폐화된 진료분위기 쇠신책 강구도

치협은 지난 2월 17일 '현 의료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황폐한 의료환경과 진료분위기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고자 정부의 심각한 반성과 함께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경제특구 내 외국 영리 의료기관의 진료와 관련,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외국 병원산업에 무분별하게 내맡김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상존화하고 의료이용상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야기시킨다며, 국민분열을 책동하는 졸속한 정책 추진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국내의료산업 육성과 황폐화된 진료분위기 안정 및 쇠신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운영시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방향을 확립,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료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이루는 의료 선진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협은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형태를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보험수가 결정 시스템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휴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과 조사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보험급여 실사 등 정부기관의 빈번한 방문, 조사, 간섭 등으로 인해 치과의사들이 심리적 노이로제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방문행위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진료 분위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 올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률 81.4% 외국치대 졸업자 합격률 24%로 크게 높아져

2004년도 제56회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이 81.4%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치대 졸업자의 합격률이 24%로 나타나 2003년도 8.4%, 2002년도 5.85%에 비해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국시 수석은 302점을 받은 서울치대 이연주 학생이 차지했다.

한국보건교육연구소(원장 백상호)은 지난 1월 31일 국시 합격 결과를 발표, 1086명이 응시한 가운데 884명이 합격, 전체 합격률이 81.4%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 치대 출신 합격률은 200명이 응시하고 48명이 합격함으로써 24%로 나타났으며, 이중 필리핀 치대 출신은 166명이 응시한 가운데 34명이 합격, 20.48%의 합격률을 보

였다.

외국치대 졸업자와 관련, 2003년도에는 202명 중 17명이 합격(8.4%)했으며, 2002년도에는 171명 중 10명이 합격(5.8%)했다.

또 최근 10년간 외국치대 졸업자의 합격률이 20%를 넘긴 해는 94년 20.9%, 97년 42.2%, 99년 26.2%, 2001년 25.9%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도와 2002년도의 전체 합격률은 각각 77.7%와 78.35%였으며, 국내 치대 출신 합격률은 2003년도 93.5%, 2002년도 93.18%로 올해 합격률인 94.4%(886명 응시, 836명 합격)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